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 문화

이 민 선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Multi-Culture in Men's Fashion

Min-Sun LEE

Lecturer, Dept. of Clot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

(2001. 3. 1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lue of multi-culture and to examine how multi-culture has been reflected in men's fashion.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literary research was under taken to study psychoanalytical and socioeconomic contexts in which multi-culture in men's fashion has been formed. In addition, demonstrative studies on styles were undertaken through the analysis of pictures and photos. The historical range of this study is from the 19th century when western and modern original form of men's dress were visualized, to the year 2001 when the elements of multi-culture are expressed in men's fashion.

Westerners in 19th century respected Greek fine arts and the desire for realistic restoration of the body of Greek hero is well reflected in men's suits. Other races were forced to believe such realistic depiction of the Greek body as a symbol of modernization.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late 20th century, absolute power had been decentralized, and people in the third world have revealed the racial contradictions by realizing the concept of splitted subject existing in unconscious. In the post-colonial world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value of diverse cultures is admitted. Models come from various races in fine art or photographic work. Fashion trends are no longer limited to dominant mode, and designers express multi-culture by adopting and renewing folk ele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Key words: information society(정보화 사회), splitted subject(분리된 주체), multi-culture(다중 문화)

I. 서론

남성 정장을 기본으로 형성되는 일률적인 남성 패션은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획일적인 남성 패션은 정장의 캐주얼화, 여성화, 또는 직장에서 캐주얼웨어의 착용이 수용됨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남성복의 여성화, 캐주얼화라는 지적은 표면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러한 변화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단계로 이행하는 커다란 시대적 변화와 관계가 있다. 즉, 기계 생산에 의한 산업이 정보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남성, 서양, 엘리트라는 절대 권력 집단이 행사하였던 성, 인종, 계급 차원의 모순이 극복되고, 권력이 탈중심화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미의식이 패션 위에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중심적 문화 현상 중 특히 서구 중심주의 문화에서 벗어남으로써 생성되는 다중 문화 현상, 즉,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해 온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반성과 저항이 세력을 접하게 되면서, 서양 문화의 그늘에 가려져 온 제 3 세계의 존재들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이들의 문화가 서양 문화에 융합되어 표현되는 문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 패션을 분석함으로써 남성 패션이 다양화되어가는 현상의 일면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중 문화가 형성된 배경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사회 경제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중 문화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러한 문화가 남성의 몸과 패션에 어떠한 양식으로 표출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중 문화는 어떠한 심리적 맥락 내에서 형성되었는가?

둘째, 다중 문화는 어떠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형성되었는가?

셋째, 다중 문화는 남성의 몸에 어떠한 형태로 표상되는가?

넷째, 다중 문화는 남성의 패션에 어떠한 양식으로 표현되는가?

연구의 범위는 현대 서구적 남성복의 원형인 덴

디즘이 형성된 19세기부터 남성 패션에 다중 문화가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2001년 현재까지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다중 문화를 형성한 심리적 사회적 맥락은 문헌 연구를 위주로,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양식의 분석은 조각, 사진 등의 미술 작품, 역사 문헌, 미술사 문헌, 현대 패션 잡지, 회화 등에서 추출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된 문헌 연구를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II. 다중 문화가 형성된 심리적 맥락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할 뿐 누군가에 의해 보여지는 것을 모른다. 그녀의 얼굴이 곧 내 얼굴이라고 믿는 이 오인의 단계를 Lacan은 거울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에서도 자신만을 보는 이 거울 단계를 착각이 개입된다는 뜻에서 상상계(想像界)라 이름 붙이고, 자아 형성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상적 자아로 상정한다. 이렇게 착각 속에 형성된 자아는 바람보과 보여짐이 함께 있는 주체이기에 자기 의식적이며, 타자가 결합됨을 인식하지 못한 분리된(splitted) 주체이다.¹⁾

백인 문화가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회, 인종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 사회이다. 이런 사회의 주체는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주체와 대상을 일치시키는 Lacan의 거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상계적 착오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체는 타자를 자신과 동일시하기에 하나의 문화는 다른 문화와 차이를 지닌 독특한 문화로 공존하는게 아니라 우월의 관계가 되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압한다.²⁾

유럽의 제국주의는 패션에서도 서구적 신체를 이상적인 미로 성립하고, 이상화된 유럽인의 이미지를 양산하고, 이를 타 인종의 신체 위에 각인함으로써, 타인종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한 소외감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이후 최근까지 2세기를 지배하여왔다.

이와 같이 타자를 타자로서 인정하지 못했던 서양 제국주의는 제 3 세계를 아직 인종적으로 진화가 진행되지 못한 민족으로 판단하여, 그들의 근대화를 추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서구의 패션을 강요하였으며, 그들의 민속 복식을 근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형태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서구화는 곧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구 중심주의는 패션에서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카피를 낳게 하여 천편일률적인 패션으로 유도하였으며, 결국 제작자나 착용자에게 열등의식을 쌓이게 할뿐이었다. 타인종은 서구 남성의 권능적 이미지나 관능미를 좇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분리된 주체에 대한 지각은 서구 중심 사회가 식민지 국가들에게 상상계적 동일시를 강요하는 것임을 밝히고 이에 저항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제 3 세계 민족들에게 그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고유성을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이에 따라서 혼혈 인종이나 제 3 세계의 인종이 대거 모델로 등장하고, 제 3세계의 복식의 요소들이 패션에 도입되고 있다.

다양한 민속풍의 복식들은 엘리트, 서양 제국 혹은 남성들이 상정한 이상적 자아에서 그 주체가 분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분리된 주체 속에서 타자를 인정하는 해체론적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는 정신분석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Ⅲ. 다중 문화가 형성된 사회·경제적 맥락

우리는 지금 탈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관습과 사조 및 지배 문화에 한계를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깨달음과 움직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구조주의(脫構造主義)나 해체(解體)이론 등은 그러한 인식과 운동의 구현이고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³⁾

해체론은 온갖 중심주의의 허구를 들추며 역사상 그동안 주변으로 몰려났거나 지워져온 것들이 자의

적인 구조의 문제였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해체론의 전복적인 기능은 인종의 차이, 식민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탈 시대의 정신은 첫째, 하나의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 다양성과 상대성, 그리고 열린 태도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둘째, 그동안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해 온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반성과 저항이며, 세제, 타자의 발견과 인정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배문화의 그늘에 가려져 온 제 3 세계의 존재들에 대한 인식과 인정, 그리고 그들과의 자리바꿈을 의미한다.⁴⁾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해체 이론 등의 한 단면인 제 3세계의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

Jameson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소비 자본주의의 논리를 반복 강화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은 오늘날 다국적 자본주의의 출현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이는 컴퓨터화된 지식이 지난 수 십년 동안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 되어 왔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이미 최고도로 발달된 선진국의 노동력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왔다. 컴퓨터 시대에서 지식의 문제는 이제 정부의 문제 이상의 것이 되었다. 규제와 재생산의 기능이 관료의 손을 떠나 기계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점차 중심 문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해줄 정보를 지니고 있는 기계에 누가 접근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⁵⁾

새로운 컴퓨터 지식이 권력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과거에는 민족-국가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웠지만 이제 정보의 차이를 위하여 싸우게 된다. 이미 새로운 자본 순환의 형태인 다국적 기업에서 투자 결정은 민족-국가의 지배 형태를 벗어나 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화라는 슬로건 아래 변하고 있다.⁶⁾ 일부 학자들은 국민국가와 같이 개괄 가능한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제2의 근대화라고 명명하며, 첫 번째 근대화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으로 설명한다.⁷⁾

1970년대 말에 그리고 80년대 동안에, 중요한 변

화들이 일어난다. 이 변화들은 시대의 변화를 표시해 준다. 냉전 시대의 지정학은 권력 관계라는 유동적이고 비결정적인 분야로 대체되었고, 그 속에서 국가는 더 이상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서구의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을 만들어 내면서, 탈식민지화한 세계는 더 이상 서구 강대국들의 지배하에 직접적으로 놓이지 않게 되었고,⁸⁾ 이에 따라 인종 간의 혼혈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산화에 따른 다양한 직종의 등장과 인정은 새로운 남성상을 재고하게 하였다. Tiger Woods의 활약과 그의 복합 인종적인 신체는 이러한 변화를 대변해주는 듯하다.

이제 '탈' 시대에는 서구 제국주의의 권력의 개념을 대신하여 제 3 세계 국가들의 힘 개념이 제안되면서,⁹⁾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적 에너지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반응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패션은 다양한 힘들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문명 간의 공통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무시하고 사라지게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복수성(複數性), 다문화성(多文化性)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제 3 세계 민족들에게 그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고유성을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따라서 혼혈 인종이나 제 3 세계의 인종이 대거 모델로 등장하고, 제 3 세계의 복식의 요소들이 패션에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남성 패션의 색상과 문양 등이 다양해져가고 있으며, 인체와 의복 간의 공간을 활용한 형태 등으로 변화된 모습 등을 보이고 있다.

IV. 남성의 몸에 표현된 다중 문화

사회 경제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힘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통제함으로써 지식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지식을 형상화하여 몸 위에 각인함으로써 이미지를 생산해 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과 20세기 증반 정보 혁명에 의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등

장한 권력 집단과 이들이 통제된 인간의 본성이 남성의 몸 위에 연출한 이미지를 서구 중심적인 획일적 문화와 탈 중심적인 다중 문화로 구분하여 조형 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획일적 문화와 단일 인종

서구 중심적 문화 내에 표현된 남성 신체에 관한 관념은 19세기에 서구 산업 사회가 신체에 사회 생물학과 현대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백인종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그들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1) 사진에 표현된 몸

근대에 있어서 차이란 가시적이어야 했다. 사진이나 미술의 기능 중 하나는 문명인과 원시인 사이에 눈에 보이는 구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¹⁰⁾

19세기에 절대적인 인종의 차이를 이론화시키려고 했던 유럽 사람들은 피부색깔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시기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이라고 알려진 모습으로 고릴라의 두개골을 만들었다. 그 당시에 두개골의 모양과 크기는 인종적인 특징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유럽인종의 우월성에 대해서 특히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긴 두개골을 수집하고 측정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 다른 한편, 그러한 노력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유럽인의 두뇌가 다른 민족들의 것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아프리카인, 셈족과 유럽인 간의 이러한 급진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구분은 19세기 미술사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인종과 예술의 재현은 따라서 19세기에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세대들에게, 완전성을 향한 욕망은 백인 신체의 완전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흑인 신체의 열등성으로 더 많이 표현되었다. 19세기에 도입된 사진술은 초기부터 인종, 계급, 그리고 성적인 차이의 시각적 분류를 확립하려는 시도 속에서 인류학자들이 의해 사용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식민 지배자와 그들의

편견이다. 사진은 아프리카인들의 인종적 열등성이라는 편견에 찬 사상에 순응하게 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그러한 사상의 증거물로 제시되었다.¹¹⁾

'백인 인형을 갖고 있는 흑인 아이 (Black Children with White Doll)'에서 두 명의 실제 흑인 아이와 흰 피부에 금발 머리를 한 인형을 백인의 모조품으로 보여준다(그림 1). 그들은 자기와는 다른 인형을 가지고 논다. 이 사진은 아이들에게 인종적 동일시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미국의 흑인 심리학자 Kenneth B. Clark의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 그의 실험에서 더 좋은 인형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흑인 어린이들은 인생이 보다 행복해 질거라고 말하며 백인 인형을 집었다.¹²⁾



<그림 1>

2) 미술에 표현된 몸

서양의 원근법적 인식은 세계의 중심은 단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권력과 동화되어 서양 제국주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과 완전히 다르고 훨씬 우월하다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데에 이용되었다. 이를 위해 서구인들은 그리스 미술을 인종 과학의 예증으로 즐겼으며, 미의 절대적 기준으로 추앙하였다.

서구 문화의 신체의 완전성의 추구는 그리이스의 절대적 미의 이상에 근거한다. 그리스 미술에 탁월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 문화가 그리스 미술을 즐기는 이유는 그 속에 내재하는 장점 때문이거나 민주 정신의 구현 때문이 아닌, 인종 과학의 예증으

로서 즐기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리스 미술은 우수성의 보편적인 잣대로서의 가치를 명백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¹³⁾

서구인들의 완벽한 신체는 우선 인간의 문화의 기획자로서 지나야할 이성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완벽한 비례로서 표현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누드가 관습화되었고, 그 관습화 때문에 예술의 어떤 전통에서 권위가 생겨나게 되었다.¹⁴⁾

성인 남자의 누드는 신화와 전설 또는 고대 세계와 관련된 주제로 구성된 작품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¹⁵⁾ 19세기 들어 남성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고대의 조각상을 모델로 하는 넓은 어깨와 근육이 잘 발달된 가슴으로부터 점차 가늘어져 날씬한 배와 가는 허리에 긴 다리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¹⁶⁾(그림 2)



<그림 2>

2. 다중 문화와 복합 인종

19세기 유럽인들에 의해 절대적 미로 숭상되던 고전적 신체는 사진 기술의 보급에 따라 백인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성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되었던 다양한 인종의 신체들에 의해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동양의 화가들이 시도한 모더니즘적 시각적 체계에 대한 도전은 새로운 미의식을 확산시켰다. 미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80년대 이후 탈식민지화(post-colonial)한 세계에서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신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1) 사진에 표현된 몸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인들의 우수성은 타국인의 야만성의 입증을 통해 과시되었다. 그러나 사진 복제술은 19세기의 고전적 신체가 붕괴하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진 복제술은 사실적인 묘사로 호평을 받고 있던 많은 명작의 가치를 격감시켰고, 모르고 있었던 대부분의 작품에 새로운 가치, 즉 사실적 묘사 이외의 표현에 대한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일으켰다. 이것은 또 보편적인 미의 개념이 제한된 지역의 일과성 예술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구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는 서양에만 있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걸친 일반적인 수준으로 다양한 미의 위상이 확산되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전세계 속에 교류되고 있는 사진 즉, 다양한 인종들이 표현된 사진들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그림 3> 이러한 현상이 대두된 것은 인간이 가진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사진에 나타난 다양한 인종이 가진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였고, 이는 미에 대한 절대적 가치에 의심을 품게 하고, 미의 상대성이라는 원리를 고무시켰기 때문이다. 즉 아름다움이란 권력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영속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서구 사회에서 구축된 예술의 역할이나 심미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¹⁷⁾



<그림 3>

2) 미술에 표현된 몸

미술에서 신체를 재현함에 있어서도, 이상적 신체라는 19세기의 담론이 붕괴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새로운 신체들이 등장하였다.

Gauguin은 “당신들 이전에는 페르시아인과 캄보디아인, 그리고 이집트인이 먼저 있었다. 비록 아름답게 비칠지는 몰라도, 가장 큰 오류는 그리스인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 이후로 미술가들은 서구적 전통의 테두리가 주는 속박 너머의 것을 탐색하게 되었다. 이들은 아프리카, 극동, 서구인이 도착하기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의 미술, 그리고 속박 미술 또는 민속 미술 등에서 점점 산업화되어가는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소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원천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⁸⁾

Basquiat는 인종 차별에 의존하는 모더니즘의 시각 체계에 의문을 던졌다.¹⁹⁾ Basquiat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현대 미술이 인종 차별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탐구하려고 했다.²⁰⁾ 그는 더 나아가 인종을 나타내지 않는 신체를 재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다. 그는 그의 작품 ‘하인없는 올림피아’는 리얼리즘적인 재현의 전통과 ‘홀륭한’ 테크닉이 의미하는 바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함으로써 Manet의 ‘올림피아’를 다시 구성하였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종이 표시되지 않은 신체를 그려보려고 했으며, 이는 다른 신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Morimurah는 Manet의 ‘올림피아’<그림 4>가 그 자신의 시대의 시각적인 재현을 이끄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 보여 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분석을 차용하여 더 진전시켰다. Morimurah는 백인과 아프리카의 신체가 접하고 있던 장소에 아시아의 신체를 보여 줌으로써 인종적인 유형화의 문제를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게 전면으로 부각시킨다.<그림 5> Morimurah의 작품은 금발 머리와 동양인의 신체를 콜라주하여 다중 문화를 표현함으로써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²¹⁾

Basquiat나 Morimurah의 작품에서 보이듯이, 인종이 명기되지 않은 혹은 복합 인종적 신체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트모던은 가상현실,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이라는 근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시작을 이루어 냈으며, 이러한 가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콜라주 기법을 통해 다양한 신체 표현, 즉 복합 인종에 대한 실험 뿐 아니라 나아가서 신인류에 대한 가상 실험을 행하고 있다. Basquiat나 Morimurah는 인종적 모순에 대한 저항을 컴퓨터라는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미 미래의 비전을 몰감과 붓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림 4>

<표 1> 획일적 문화와 다중 문화에 표현된 몸의 형식과 의미의 비교

	사진 및 미술에 표현된 몸의 형식	사진 및 미술에 표현된 몸의 의미
획일적 문화	흑인과 고릴라 두개골 비교 등	흑인의 열등성 표현 백인의 우월성 표현
	그리스 미술의 재현	
다중문화	다양한 인종이 모델로 등장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
	콜라주를 통한 복합 인종의 표현 낙서 기법으로 인종이 표현되지 않는 신체 표현	



<그림 5>

융합되어 표현되어 변화하여 가는 양상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획일적 문화와 남성 패션

서구인들의 근대성은 시각적 문화에 있어서 사실적 표현으로 형성되었다. 근대적으로 인식되었던 남성의 수트 역시 인체의 관절에 따라 부분 제작된 후 합체되었으며, 재킷의 경우, 패딩, 다아트 등을 활용하여 벗은 후에도 인체의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되는 등 남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표현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V.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 문화

고대 그리스를 표방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신고전주의 문화는 19세기 초 형성된 현대 남성복의 원형인 남성 수트에도 반영되었다. 신고전주의 문화의 표현 대상은 그리스 시대의 이상화된 몸이었으며, 표현 기법은 이러한 몸에 대한 사실적 표현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획일적인 남성 패션의 근간을 이루어 온 남성 수트에 대해, 표현 기법의 측면과 표현 대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다중 문화가 대두됨에 따라, 서양의 신고전주의 문화에 근거를 두었던 획일적인 서양 남성 패션이 제 3국의 문화 특히 흑인 문화 및 동양 문화와

1) 사실적 표현(표현 기법)

남성 정장은 사실적 표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대성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1800년 경 이전의 복식사와 그 이후의 복식사를 비교해 보면, 현대의 의상을 구별해 주는 특징인 의복의 근대성이 어떠한 형상으로 구현되는가를 보게된다. 여성복은 항상 시각적으로 강력하고, 극적인 요소들을 표현함으로써 근대적이지 못한 사고들을 여전히 반영하였지만, 남성 정장은 신고전주의 문화에서 열망하는 사실적 표현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²¹⁾ 남성복에서 장식적 요소는 전체적 구조와 통합되어, 어떤 요소

도 두드러지거나, 약화되거나, 왜곡되거나 부조화된 모습을 취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었다.

고대의 그리이스 양식, 중세의 르네상스 양식, 그리고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사실주의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감정보다 높이 평가함으로써 인간이 동물 내지는 제 3 세계의 야만인들과 구별되는 가치로서 표방되었다. 특히 19세기 인상과 화가들에 의해 발달한 원근법은 시각의 중심성을 정립함으로써, 이 시기의 제국주의 정책과 맞물려 서구를 세계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서구인들이 표방하는 사실주의의 성취, 즉 서구화는 곧 제 3세계 민족들에게 근대화의 의미로서 강요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적 표현에 입각한 근대성의 가치는 재단술의 발달과 함께 남성의 복식에도 예외없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즉 고딕시대부터 재단과 봉제 기술이 개발되고, 십자군 정쟁 이후 종교와 인체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복식이 점점 몸에 밀착하는 경향이 생겨났고,²³⁾ 이는 신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식을 출현하게 하였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바지 모양의 다리 덮개가 말타기에 실용적임이 증명되면서,²⁴⁾ 바지는 남성적이면서, 합리성을 대표하는 의복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인체의 사실적 표현에 크게 기여하는 의복 아이템이 되었다. 특히 유럽 패션의 혁신적인 진보의 첫 단계는 12세기 후반 개발된 갑옷과 관계가 있다. 이 시기의 복식의 사실적 표현은 인체의 각 관절을 따라 각 부분이 제작되고, 각 부분이 하나의 복식으로 합체되었던 갑옷 발달에 따라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비록 그 이후의 남성 패션이 남성의 인체를 과장시키거나 압축시키고 장식하고, 심지어 몸을 감싼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목적은 인간의 형상 자체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었다.²⁵⁾ 갑옷의 혁신은 서양 패션에 있어 최초로 진정한 현대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남성 신체의 모든 분리된 부분들을 새로이 다시 디자인하여 이를 3차원적 형태로 재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²⁶⁾ <그림 6>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남성 복식은 어깨와 가슴에 댄 패드로 부풀려진 상의 더블렛(doublet)과 타이트한 하의 호스(hose)로 이루어졌다.²⁷⁾ 이는 의복의 입체화가 진

행되면서 가능했던 남성의 인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진보였다. 이후로 19세기에 고안된 남성 수트는 전체적인 인체 구조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어 왔고, 그 형태의 형식성은 인간의 육체의 실제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이 남성복은 강력한 사실성을 지니는 것이다.<그림 7>

남성들은 가운, 쇼울, 배일 등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신체 그 자체가 관절로 이어져 있기를 바라지 느슨한 직물에 의해 통합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은 스커트 입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역시 동일하다. 이러한 인체의 재현은 신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다. 가벼운 움직임이나 갑작스런 동작 이후에도 옷의 조형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돌아옴으로써 남성들은 사실주의 표현을 통한 근대성의 성취, 그리고 이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서구우월주의를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듯하다.



<그림 6>



<그림 7>

2) 그리스적 이상의 표현(표현 대상)

중세에 새롭게 개발된 갑옷은 전통적인 갑옷의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다. 이것은 근육을 모방한 듯한 금속조각으로 맨몸을 덮음으로써 몸통의 형태와 팔과 다리의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누드 형식을 따른 것이다.²⁸⁾

갑옷의 발달에 따라 의복의 입체화 과정이 진행된 14세기부터 남성복과 여성복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두블렛과 호스로 이루어진 형태는 분명 고대 남성 누드에 대한 재유행을 반영했고, 이것은 이태리 르네상스 예술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었다.²⁹⁾ 이러한 갑옷과 갑옷의 입체적 형태로부터 비롯된 남성 복식은 고대 그리스의 이상화된 몸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스 조각에 나타난 이상화된 남성은 등 뒤에 케이프만 들렀을 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완벽한 누드를 드러내었다. 누드야말로 독립성과 합리성, 남성의 힘, 정직성 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기원전 3세기까지 고대 그리스 미술의 관습은 남성 신체를 누드로 만들고, 여성의 신체는 완벽하게 감싸 놓았다. 따라서, 19세기에 신고전주의가 부활됨에 따라, 남성복은 남성의 신체 표현에 충실한, 여성복은 의복으로 신체 특히 하체를 은폐한 형태가 표현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누드가 패션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성복 재단사들은 의복과 신체와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완벽하게 3차원적으로 남성 신체를 둘러싸으로써 고대의 이상적 누드를 완전히 재창조하기 시작했다.³⁰⁾ 즉 근대 남성 정장에는 패드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넓은 어깨와 심감을 활용하여 표현된 딱딱한 남성적인 가슴이 묘사되었다. 또한 남성적인 어깨와 가슴 아래로 흘러내리는 남성 신체 즉 평평한 복부, 작은 허리가는 옆구리와 긴 다리등을 표현할 수 있는 재단과 구성법, 유연하게 흐를 수 있는 모직 소재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건장한 남성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 목 부위를 강화하고자 뾰뚱한 칼라와 넥타이의 매듭 등이 부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성에 관한 서구인들의 일방적인 표준이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표준은 제 3 세계 국가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삶의 회의를 갖게 하는 것임³¹⁾에 대한

서구인들의 자성의 소리가 일게 되었다. 이제 서구인들이 규정한 근대성의 의미는 인종차별적인 유럽 문화 현실로서 도전을 받게되었다.

2. 다중 문화와 남성 패션

패션은 성적 정체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패션은 압박과 착취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서양 식민 정책의 진행에 따른 원주민 토착 문화와 의상의 소멸과 서양의 무제한적 카피나 차용은 그에 따른 의복의 전통적 공통체의 소멸을 낳았다. 서양 남성복의 사실적 표현으로 대표되는 근대성이 우세한 모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포스트콜로니얼한 세계의 패션은 더 이상의 우세한 모드에만 치우쳐 있지 않으며,³²⁾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여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조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 중 대표적으로 남성 패션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흑인 문화와 동방 문화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남성 패션이 19세기 신고전주의에 기반한 서양 근대 문명의 정통성을 거부하고, 흑인 문화, 동방 문화와의 접목을 시도한 형태들을 제시함으로써, 문화 융합의 국제적 경쟁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흑인 문화

1960년대에는 흑인 스타일이 패션 시스템으로 이해되었다. 흑인 스타일은 반항과 저항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를 통해 흑인 스타일에 대한 실험은 도시 패션에서 더욱 일반적으로 대중화되고 구체화되었다. 흑인 문화에 대한 자부심, 흑인 패션에 대한 허용 그리고 흑인 문화에 대한 관용이 흑인 패션에 있어서의 캐주얼, 스포츠웨어가 일반 패션에 확대되도록 하였다.³³⁾

남성 패션 변화의 원인 중 하나는 스포츠와 연예계에서는 이미 인정된 흑인 남성들이 새로운 세대로 받아들여진 데에서 기인한다. 스포츠웨어의 출발은 70년대 후반의 레게(Reggae)의 멋에서 시작된다. 자메이카 흑인 음악인 레게음악은 흑인들이 겪은 인종 차별과 자본주의의 억압적 정치에 대한

반발, 흑인 의식 고취 등과 같은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³⁴⁾ 레게 음악의 황제라 불리는 Bob Marley는 길게 끈 머리와 자연 섬유 의 옷을 입고 레게 음악을 노래하였고, 이는 당시 영국의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었다.³⁵⁾

80년대 초반에는 운동복과 운동화는 빈민가에서 유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힙합 패션으로 전개되어 세계적인 유행을 낳았다.<그림 8> 미국 뉴욕의 흑인 할렘가에서 10대들에 의해 흘러나온 이 특별한 문화 조류는 1990년대 들어가면서 그 자유로움과 반항 정신을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전 세계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패션, 춤, 노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힙합 스타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랩을 이용한 음악, 몸에 웨이브를 주면서 꺾고 돌리며 춤의 각 동작 끝에 힘을 주어 끊음으로써 춤에 각을 세우는 춤, 낙서 예술의 모태가 된 그래피티³⁶⁾, 구속받기 싫어하는 젊은이의 자유로운 감성을 반영하듯, 험령하게 큰 셔츠와 흘러내릴듯한 통이 큰 바지가 스타일의 특징을 이룬다.



<그림 8>



<그림 9>

또한 흑인 디자이너들의 등장은 패션에서 흑인 문화의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흑인 가수들 역시 패션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남성 자켓의 소매를 걷어서 입는 것은 Michael Jackson의 'Thriller'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젊은이들을 여피(yuppies)로부터 분리해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³⁷⁾<그림 9>

2) 동방 문화

1960년대 패션에서 동방의 영향은 미국에서 시작된 히피 저항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³⁸⁾ 히피족들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반항으로 제 3세계에 흥미를 갖게되었고 특히 동방의 문화와 종교에 관심을 가졌다.³⁹⁾ 이슬람 영향으로 형성된 미국과 영국의 Hare Krishna 종파는 신도의 신앙적 추종을 상징하는 독특한 의복 형태를 채택했다. 삭발을 하고, 단순한 의복을 채택함으로써 물질적 세계와 죄와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종교적 가치관을 상징하였다.⁴⁰⁾

특히 1980년대 초반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패션 선도국으로서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옷에 대한 서구인의 고정관념을 깨고 아시아의 문화와 패션으로 세계 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였다.⁴¹⁾ 수많은 디자이너들 특히 Issey Miyake, Rei Kawakubo, Yoji Yamamoto, Kenzo 등의 활약은 서양 의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일본 디자이너들은 일본의 미적 철학의 세가지 중요 요소 즉 불규칙성, 불완전성, 그리고 비대칭의 영향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Yoji등은 소매를 실제 팔 보다 길게, 바지통을 실제 다리 보다 훨씬 넓게 제작하는 등 의복과 인체 사이의 관계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그림 10>. 서구 의복에서는 소재가 인체 선에 맞게 재단되어 봉제되어, 의복의 형태는 인체에 맞게 모형화됨으로써 의복과 신체 간의 공간은 채워진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동방의 의복은 평면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 지배적이다. 인체의 부재는 의복의 구성선, 형, 그리고 질감을 보다 비입체적으로, 그리하여 인체와는 독립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림 11>은 동양 의복의 평면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패션

으로, 서구적인 인체에 대한 이상, 인체-공간의 관계, 그리고 의복의 관습으로부터 어느정도 탈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⁴²⁾



<그림 10>



<그림 11>

아시아의 전통적 요소인 문신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유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의 영역에서는 이국적 요소로 남아 있다. 문신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희귀성과 비서구적 드레스 코

드와의 관계에 의해 이국적인 정취를 상승시켰다. 1980년대 이후 서구 패션에서 문신이 재유행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정점에 달해있다. 비영구적인 문신과 문신을 제거하는 기술의 발달은 문신에 따라다니던 오명을 완화하였고, 그 이국적 관계에 의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드레스의 한 형태로서 하이 패션의 한 구성 성분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의 전통적 요소인 문신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유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의 영역에서는 이국적 요소로 남아 있다. 문신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희귀성과 비서구적 드레스 코드와의 관계에 의해 이국적인 정취를 상승시켰다. 문신은 정체성의 기장과 개인적인 서명을 제공하는 의복의 한 형태이다. 1980년대 이후 서구 패션에서 문신이 재유행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정점에 달해있다.<그림 12> 비영구적인 문신과 문신을 제거하는 기술의 발달은 문신에 따라다니던 오명을 완화하였고, 그 이국적 관계에 의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드레스의 한 형태로서 하이 패션의 한 구성 성분이 될 수 있게 되었다.⁴³⁾



<그림 11>

<표 2> 획일적 문화와 다중 문화에 표현된 남성 패션의 형식과 의미의 비교

	남성 패션의 형식	남성 패션의 의미
획일적 문화	넓은 어깨, 가슴, 가는 허리, 긴 다리로 인체를 재현하는 형태	그리스의 이상적인 누드의 재현으로 서구우월주의를 표현
	관절에 따른 부분 제작 후 합체로 입체 조형으로 구성 의복과 인체 간의 공간을 최소화	인체에 대한 사실적 표현으로 근대화를 표방
다중문화	흑인 문화 레게 스타일 힙합 스타일 마이클 잭슨의 재킷 소매 걸어 입기 등	수트의 단순성 거부, 장식적 요소 부가 수트의 권위성 거부, 캐주얼화
	동방 문화 인체로부터 독립된 평면 조형 인체와 의복간의 공간 연출 문신 등	인체에 대한 신고전주의적 사실적 표현 거부 수트의 단순성 거부, 장식적 요소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패션에서 다중 문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인간의 내적·외적 상황들을 분석함으로써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 문화가 형성된 배경을 파악하고, 그 조형 양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중 문화가 형성된 배경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사회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조형 양식을 고찰하였다. 또한, 패션은 몸으로부터 확장된 영역이라는 견지에서 남성 패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몸에 표현된 다중 문화의 조형 양식을 부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다중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중 문화가 등장하기 이전 서구 중심적인 획일적인 남성 패션이 지니는 의미와 양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최근 남성 패션에 표현되는 다중 문화는 모더니즘적 최고 기준들이 그 가치를 상실하고, 탈중심화된 포스트모던한 관점이 부각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이다. 탈중심적 사고 체계 내에서 형성된 다양한 남성의 이미지들은 모두 이전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도하며, 절대 권력이 무시하였던 인간의 무의식에서 저항의 근거를 찾았다. 정보화 사회가 도달하면서 탈식민지화된 세계는 더 이상 서구 강대국들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게 되었고, 제3세계인들은 이전의 서구 중심 사회가 식민지 국가들에게 상상계적 동일시를 강요하였음을 밝히면서, 그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고유성을 가치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19세기 이래로 신고전주의 문화에 입각한 획일적인 문화 내에서 몸의 표현은 서양인의 우월성, 제3국인들의 야만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남성 패션의 대표적 의상인 수트는 몸에 대한 사실적 표현이었고, 이때 표현의 대상이 되었던 이상적인 몸은 넓은 어깨와 가슴 그리고, 날씬한 허리와 긴다리를 가진 그리스적 이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다중 문화 내의 미술이나 사진 작품에는 다양한 인종의 몸이 모델로서 등장하고 있거나 혹은 인종이 표시되지 않는 신체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패션 역시 더 이상 우세한 서구의 모드에만 치우쳐 있지

않으며, 디자이너들은 새로움을 위해서 전 세계의 민족적 디자인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음으로써 다중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평면적이면서, 관절 부분이 모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체와 의복 간의 공간이 형성되어 움직임에 따라 실루엣이 변화하는 비구조적인 의복 구성이나, 문신 등의 동양적인 영향, 레게나 힙합 등의 흑인 문화의 영향은 가장 대표적인 서구 중심적 패션에 대한 침투일 것이다.

남성 패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흑인 문화와 동방 문화는 그 문화가 정통적으로 표현되었기 보다는 예전의 획일적이던 서양 남성 패션에 융합되어 표현된 것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는 이제 새로운 소비 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국소적인 민족성보다는 정통성에 얽매이지 않은 융합된 형태의 디자인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는 복수주의와 복수 문화주의가 파고든 시기이다. 복수주의와 복수 문화주의는 각 나라들 자체 안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의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이제 서구가 강요한 절대미(絶對美)에 대한 수 백년에 걸친 무의식적 추종에서 벗어나므로써 미의 상대성이 대두되고, 많은 남성 패션에서도 서구 남성이 만든 남성의 이미지의 정통성이 거부되고, 제3국이 만든 남성미가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참고문헌

- 1) 권택영, 『성과 권력』 (서울: 문예 출판사, 1998), pp.65-6.
- 2) Ibid., pp.134-5.
- 3) 김성근,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v.
- 4) Ibid., pp.v-vi.
- 5) Madan Sarup, and Chung-ying cheng, 임규현 (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입문적 안내』 (서울: 이론과 실천, 1993), pp.135-6.
- 6) Harald Müller,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 Verlag Gmbh, 1998), 이영희 (역), 『문명의 공존』 (서울: 푸른숲, 1999), p.25.
- 7) Ibid., p.26.
- 8) Nicholas Mirzoeff, 이윤희, 이필 (역), 『바디스케이프』 (서울: 시각과 언어, 1999), p.29.
- 9) Michael Ryan, Politics and Culture: working hypotheses for post-revolutionary society, 나병철, 이경훈 (역),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 (서울: 갈무리, 1996), p.53.
- 10) Nicholas Miszoeff, Op.cit., p.65.
- 11) Williams Ewing, The Body (London: Thames and Hudson, 1994), pp.212-7.
- 12) John Pultz, The Body in Photography (London: Calmann & King Ltd, 1995), 박주석 (역), 『사진에 나타난 몸』 (서울: 예경, 2000), p.95.
- 13) Nicholas Mirzoeff, Op.cit., pp.58-9.
- 14) John Berger, Ways of Seeing, 편집부 (역), 『이미지』 (서울: 동문선, 1990), p.93.
- 15) Williams A. Ewing, Op.cit., p.64.
- 16) Ann Hollander, Sex and Suit (N.Y.: Alfred A. Knopf, 1994), p.96.
- 17) John Berger, Op.cit., p.291.
- 18) Tom Flynn, The Body in Sculpture.(London: Calmann & King Ltd, 1998), 김애현 (역), 『조각에 나타난 몸』 (서울: 예경, 2000), p.153.
- 19) Nicholas Mirzoeff, Op.cit., p.265.
- 20) Ibid., p.38.
- 21) 한림미술관 · 이대기호학회연구소 엮음, 『몸과 미술: 새로운 미술의 시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p.96-7.,
- 22) Anne Hollander, Op.cit., p.15.
- 23) 박명희, "중세 서양 복식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p.52.
- 24) Horn &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1981), p.79.
- 25) Ann Hollander, Op.cit., p.62.
- 26) Ibid., p.63.
- 27) Aileen Rebeiro, Dress & Morality, (London: B.T.Batsford, 1986), p.62.
- 28) Ann Hollander, Op.cit., p.62.
- 29) Ibid., p.64.
- 30) Ibid., p.117.
- 31) Shari Benstock & Suzanne Ferriss, On Fashion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94), p.32.
- 32) Ibid., p.7.
- 33)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eledge., 1994), p.40.
- 34) 김수련, 엄혜정, "레게패션의 디자인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 50권 3호, 2000, p.135.
- 35) 주은희, "Hip-Hop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36) 벽이나 전철 또는 다리교각 같은 곳에 에어스프레이 페인트로 독특한 모양의 근자, 그림, 또는 문구를 그려 넣는 것을 가리키며, 범죄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의 한 형태,
- 37) Juliet Ash and Elizabeth Wilson, Chic Thrills (London: Pandora Press, 1992), p.46.
- 38) 간문자, "1960년대 저항 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복식학회지, 제 30권, 1996, p.158.
- 39) 박은주, 은영자,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 43권, 1999, p.265.
- 40)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김순심, 유은희, 이유경, 이은숙 역,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1990), p.162.
- 41) 김희정, 이경희, "동양적 복식 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제 2보)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 24권 3호, 2000, p.314.
- 42) Jennifer Craik, Op.cit., p.41.
- 43) Ibid., p.25.